인 사 말

김 영 목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존경하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원 여러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김영목입니다. 우리 학회는 내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과 공중보건 발전을 이끄는 중심 학회로 굳건히 자리매김해 왔으며, 학문적 성과와 최신 정보를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 초반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시기부터 우리 학회는 과학적 연구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세우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식품위생과 안전성 평가, 독성 연구, 기준 · 규격 제정, 소비자 안전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해 온 학회의 성과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식품안전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해 요인의 등장, 글로벌 식품 공급망 다변화로 인한 잠재적 위험 증가, 바이오 · AI ·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식품 생산 방식 등은 학계, 규제기관, 산업계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규제기관, 산업계 모두에게 새로운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안, 객관적 정보 제공,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적 기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앞으로도 융합 연구 강화, 국제 협력 확대, 차세대 전문가 양성, 그리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제언을 통해 식품안전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회가 더욱 든든한 지식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학회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신뢰받는 지식 공동체로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김영목 배상